

전일동향

전일대비 5.40원 하락한 1,392.40원에 마감

20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장대비 5.40원 하락한 1,392.4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7.80원 하락한 1,390.00원에 개장했다. 환율은 수입업체 결제수요 등 저가매수 유입에 낙폭을 축소했다. 다만, 미일 환율 협상 기대에 따른 달러 약세 및 엔화 강세에 재차 낙폭을 확대하며 1,392.40에 증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7.8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63.77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증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390.00	1396.90	1389.10	1392.40	1392.60
엔화	964.76	966.54	957.24	963.38	-	
유로화	1570.86	1572.24	1559.98	1570.82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01	-7.27	-16.09
결제환율(수입)		-0.55	-6.35	-14.33	-28.69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아시아 통화 강세에...1390원대 초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3.1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392.40) 대비 1.20원 상승한 1,390.5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미일 환율 협상 기대에 따른 엔화 강세에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회담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가토 가쓰노부 일본 재무상은 환율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미일간 BOJ 통화정책과 더불어 엔화 가치 절상에 대한 압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엔화는 강세를 시현하며 0.23% 하락한 144.51엔을 기록했다. 달러인덱스는 0.35% 하락한 100.02pt에 마감했다. 또한, 미국의 환율 압박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통화로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원화도 절상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금일 환율은 이에 연동되어 하락 흐름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입업체 결제 등은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87.80 ~ 1398.20 원
----------------------	----------------------------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144.78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20원 ↑
	■ 美 다우지수 : 42677.24, -114.83p(-0.27%)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17.4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34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